

감독님 ‘목’을 지켜라

KBO리그 하반기 성적따라 생존 좌우...살아남을 자 누구냐?



5위 롯데-10위 kt 불과 5.5게임차
누구나 가을잔치-폴찌 가능한 상황
감독들 운명 결린 치열한 서바이벌



꿀맛 같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면 곧바로 전쟁에 돌입한다. 19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운명이 걸려있다. 상위권보다 오히려 중하위권 전쟁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 컷라인인 5강 한 자리를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펼친다. 5위 이하 6개 구단은 모두 승률 5할에 미달돼 있지만, 누구든 5강에 들 수 있고, 누구든 꼴찌로 떨어질 수 있는 싸움을 펼친다. 타켓이 주어지는 5위 자리에 올라 있는 롯데가 39승43패로 승패마진 -4를 기록 중이다. 승률 0.476. 그리고 6위 KIA(38승1무44패·승률

0.463)가 롯데를 1게임차로 뒤쫓고 있다. 전반기 가장 오랫동안 꼴찌에 머물던 한화(34승3무44패)가 전반기 막바지 7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6위 KIA에 2게임차, 5위 롯데에 3게임차로 따라붙었다. 8위 LG(34승1무45패·승률 0.430)도 한화와는 0.5게임차며, 롯데와도 3.5게임차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KBO리그 사상 최초로 5년 연속 페넌트레이스 1위를 석권한 삼성(34승1무48패·승률 0.415)은 전반기를 9위로 마감하면서 충격을 줬다. 익숙한 상위권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포스트시즌 진출만큼은 여전히 가시권이다. 롯데와 5게임차에 있기 때문이다. 10위 kt(32승2무47패·승률 0.407) 역시 삼성과 0.5게임차, 롯데와 5.5게임차여서 탈꼴찌는 물론 5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감독들도 하반기 결과에 따라 지도자로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 류중일 감독과 kt 조범현 감독은 계

약기간 3년 중 올해 마지막 시즌이다. 롯데 조원우 감독은 감독 첫해이며, KIA 김기태 감독·한화 김성근 감독·LG 양상문 감독은 계약기간 3년 중 올해 2년째다. 그러나 감독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하반기에 성적이 급전직하한다면 내년에 계속 지휘봉을 쥐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올 시즌 후 감독 경력에 어떤 특기사항을 새겨 넣을지 알 수 없다. 현재 SK가 5할 이상의 승률(43승42패·승률 0.506)로 4위에 올라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SK 역시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위로 3위 넥센과 5.5게임차지만, 아래로 6위 KIA와 3.5게임차다. 오히려 아래쪽이 더 가깝다. 김용희 감독도 올해 계약기간 2년의 만료로써 하반기 성적이 중요하다. 3연승 혹은 3연패에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는 피말리는 순위싸움. 모든 팀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19일 하반기 출발선에 선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알림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6 화순 전국 초·중·고·대학교대학 배드민턴선수권

제2의 이용대를 꿈꿔라!

24일부터 30일까지 전남 화순서 열린 전국 150개팀 1300여명 '꿈을 건 승부'

한국배드민턴 꿈나무들이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28·삼성전기)의 고향 전남 화순에 모입니다.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6 화순 전국 초·중·고·대학교대학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 이용대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2008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용대의 고향 화순, 그리고 그 이름을 건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초·중·고·대학교 150개팀, 1300여명이 참가합니다. 전국학교대학 배드민턴선수권은 한국배드민턴 유망주들의 산실입니다. 이 대회 우승자들이 국가대표 주축선수로 성장해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매년 대회에 참가해 사인회를 열고 유망주들을 직접 만나 격려해 왔던 이용대는 올해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

림픽 참가로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신 배드민턴 꿈나무들에게 "빨리 태국마트를 달고 태릉에서 만나자"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09년부터 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화순군은 이용대의 등장과 함께 배드민턴 유망주들을 다수 배출하는 '한국배드민턴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순에서 대회를 개최한 이후 고아라, 유해원, 이준수, 서승재 등 수많은 꿈나무들을 발굴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는 2700여명의 관중을 수용하고, 배드민턴 14경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현대식 체육관으로 국제적 규모를 자랑합니다.

- 일시 : 2016년 7월 24일(일)~30(토) 7일간
- 장소 :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이용대체육관
- 주최 : 스포츠동아·동아일보사
- 주관 :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 후원 : 화순군·화순군의회·대한배드민턴협회·전남배드민턴협회·화순군배드민턴협회
- 종목 : 단체전 및 개인전

고진영, 17번홀서 3억원 쟁겼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시즌 2승'

고진영(21·넥스·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서 시즌 2승째를 따내며 우승상금 3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 2타 차 선두로 나선 고진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몰입했다. 이 대회는 KLPGA 투어 중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려 있다. 우승상금은 일반 대회보다 2~3배 많다. 또한 우승자에게는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와 3000만원이 넘는 시계도 부상으로 주어진다. 풍성한 상금과 부상 덕분에 개최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선수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은 대회로 손꼽고 있다. 첫날부터 선두로 나선 고진영은 우승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3라운드까지는 고진영의 예상대



로 경기가 풀렸다. 한번도 선두에서 내려오지 않아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최종라운드에선 예상과 달랐다. 중반 이후 이민영(23·한화)과 정회원(25)이 추격해오면서 공동선두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진영의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 1타 차 선두를 달린 고진영은 16번홀(파3)에서 잡지 않은 파 세이브에 성공했고, 17번홀(파4)에서는 약 4m 거리의 내리막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에 다가섰다. 여유를 찾은 고진영은 18번홀(파5)을 파로 마무리하면서 시즌 2승째를 확정지었다. 시즌상금을 6억3971만8666원까지 끌어올려 박성현(7억5911만원)을 약 6600만원 차로 추격했다. 인천 | 추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주말 프로축구 <16·17일>	울산	울산	3 : 2	광주	제주	제주	1 : 2	전북	수원	수원FC	1 : 2	전남	인천	인천	1 : 2	서울	수원	수원삼성	1 : 2	성남	포항	포항	0 : 2	상주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동.서.고.금. 남자의 힘!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옥이나 실리콘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능과 안전성은 극대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도 약해지고 중간에 시든다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사용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다 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은 힘에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T.1588-3346,010-8020-3346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본드링 링과 다른 의학발명특허의 원리구조 천연자수점

전선(인700가우스) 두께3mm의 얇은 본체에 특허기술로 진공 내장 본체(소분)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특 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특허청

평상시 사이즈 뉴맨 호수

6.50이하	주목 제작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0이상	주목 제작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 형일 입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밤이 무서울 때가 있더군요. 하하.

그런데 '뉴맨' 을 만나고부터 밤이 기다려 집니다.

밤을 기다리게 하는 '뉴맨'! 남자에게 최고입니다!

중국지사 T. 0433-286-5031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